

교 당 소 식

◎ 2학기 행복한 마음을 전하는 교수 순교 스케줄

	일 시	기관(대학 및 부설)명
9월	11일(화)	교학대학/마음인문학연구소
	18일(화)	사회과학대학
	20일(목)	공공정책대학
10월	2일(화)	경영대학/경영교육원
	4일(목)	사범대학/교육연수원
	11일(목)	인문대학
	23일(화)	융합교양대학/기초교육센터/의사소통교육센터
11월	1일(목)	자연과학대학/과학영재교육원
	6일(화)	농식품융합대학
	8일(목)	조형예술디자인대학
	13일(화)	창의공과대학/공학교육원
	15일(목)	약학대학
	20일(화)	한의학전문대학원/한학과대학
	22일(목)	의과대학
	27일(화)	치과대학
	29일(목)	법학전문대학원

◎ 성지순례 안내

대학교당 교도님들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 시 : 10월 13일(토) 9시 출발 (송산기념관 앞)

- 장 소 : 하섬 훈련원

부서별(단별)로 참석유무를 파악하여 10월 1일(월)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매일 전서봉독으로 마음의 지혜를 밝힙시다.

금주의 전서봉독은 원불교 교서 정산종사법어‘유촉편’(p694-704)입니다.

경전은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려준다 하였습니다. 경전공부 잘 합니다!

보은 헌공금 (원기 103년 8월 27일 이후)

강선, 김안식, 김태영, 모경하, 박맹수, 신영훈, 신지겸, 이만제, 이호섭

합계 : 350,000원

♥ 건학이념 실현에 은혜롭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

교당계좌 : 하나은행 705-910019-48505 (재)원불교

발행처 : 원광대학교 대학교당 / 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교감교무 : 보산 나상호 / 교무 : 지타원 박덕연 · 양수안 · 최현교 · 남궁현 · 표종인 · 신지겸

전화 : (063)850-5580~4 FAX : 850-5576 <http://won.wku.ac.kr>

지덕겸수 도의실천



원불교 중립학교 문화조성

제962호

원기 103년 9월 3일 첫째 주



- 사리연구(事理研究) -

1. 사리 연구의 요지

사(事)라 함은 인간의 시·비·이·해(是非利害)를 이룸이요, 이(理)라 함은 곧 천조(天造)의 대소 유무(大小有無)를 이룸이니, 대(大)라 함은 우주 만유의 본체를 이룸이요, 소(小)라 함은 만상이 형형 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룸이요, 유무라 함은 천지의 춘·하·추·동 사시 순환과, 풍·운·우·로·상·설(風雲雨露霜雪)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룸이며, 연구라 함은 사리를 연마하고 궁구함을 이룸이니라.

2. 사리 연구의 목적

이 세상은 대소 유무의 이치로써 건설되고 시비 이해의 일로써 운전해 가나니,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인간이 많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 없나니라. 그러나, 우리에게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나 우리가 지어서 받는 고락은 각자의 육근(六根)을 운용하여 일을 짓는 결과이니, 우리가 일의 시·비·이·해를 모르고 자행자지한다면 찰나찰나로 육근을 동작하는 바가 모두 죄고로 화하여 전정 고해가 한이 없을 것이요, 이치의 대소 유무를 모르고 산다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모를 것이며, 생각이 단축하고 마음이 편협하여 생·로·병·사와 인과 보응의 이치를 모를 것이며,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여 항상 허망하고 요행한 데 떨어져, 결국은 패가 망신의 지경에 이르게 될지니, 우리는 천조의 단축한 이치와 인간의 다단한 일을 미리 연구하였다가 실생활에 다달아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자는 것이니라.

겪어서 아는 지혜, 깨달아서 아는 지혜

오늘은 사리연구(事理研究)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과 이치를 연마하고 궁구하여 지혜를 얻는 공부 길입니다.
이것을 ‘겪어서 아는 지혜, 깨달아서 아는 지혜’로 풀었습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이뤄졌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종교가에 물으면 불보살과 중생 또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
니다.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과 안 아픈 사람이라 할 것이고, 장례식장에 가서 물으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라 하겠지요.
이처럼 보는 시각, 처한 입장에 따라 다 다르지요.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 세상은 일과 이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은 일과 이치 가운데에 나서 일과 이치 가운데에 살다가 일과 이치 가운데에 죽고 다시 일
과 이치 가운데에 나는 것이므로 일과 이치는 인생이 여의지 못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며 세상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펴 놓은 경전이라 했지요.
경전이란 성현들께서 진리 즉 일과 이치를 밝혀 놓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혜를 얻지요.
그런데, 사서삼경이나 불경, 성경만 경전인 줄로 아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고 현실로 나타
나 있는 큰 경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를 얻는 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환경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것은 밝은 빛을 비치면 없어지지요. 우리에게 있는 어두운 마음을 일러 무명(無明)
이라 합니다. 이 무명을 물리치는 것은 지혜입니다.

사(事)란 인간의 시·비·이·해(是非利害)를 말합니다. 일에는 시비이해가 있고 그에 따라
괴로움과 즐거움의 과보가 있지요. 우리에게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나 우리가 지어서 받
는 고락은 몸과 마음을 운용하여 일을 짓는 결과입니다. 시비이해를 따지기만 하고 반조
하지 않으면 마음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일이란 종류가 다 다르지만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로 모든 일을 비취 볼 수 있습니다.
이(理)란 우주의 대소 유무(大小有無)를 말합니다.
대(大)는 우주 만유의 본체, 전체 소(小)는 만물이 각각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
유무는 춘·하·추·동, 만물의 생·로·병·사, 흥·망·성·쇠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치를 모르고 살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모를 것입니다. 생각이 조급하고 마
음이 편협하여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모르고,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여
어려운 지경에 떨어질 것입니다.
사리연구 공부를 오래 하면, 모든 일과 이치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걸림 없이 아는 지혜
의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법 회 식 순

사회 : 최재규

◎표시는 일어서서

타	종		주	례	자
개	회		사	회	자
입	정		다	함	께
월	초	기	도		영주/기원문/묵상심고/독경
법	어	봉	독		대종경 수행품 23장
일	상	수	행	의	요
법		(전서 54쪽)		다	함
설		“겪어서 아는 지혜, 깨달아서 아는 지혜”		보	산
다	짐	심	고		다
성		가		다	함
공		고		사	회
주	간	학	사	일	정
공		고		기	획
폐		회		사	회

법 회 안 내

구	분	시	간	장	소
월	요	법	회	(월)	09:00
대	법	당		대	법
호	운	회		2, 4	주
원	맥	회		(금)	11:30
원	경	회		3	층
원	화	회		3	층
의	치	한	의	계	열
대	학	생	회	(월)	17:30
목	요	선	방	(목)	12:00
인	문	대		(금)	17:30
학	생	생	활	관	
법	심	향		(수)	12:00
원	약	회	[약	대]	
시	리	우	스	[사	범
선	명	상	반	[자	연
원	성	회	[군	사	학
가	락	[학	군	단]	
선	명	상	반	[사	회
원	심	회		(목)	18:00
차	명	상	반	(수)	13:30